예수님을 닮아 사는 우리들의

작은 마음

제 2099호 2019. 9. 15. 연중 제24주일

제1독서 : 탈출기 32,7-11.13-14
제2독서 : 티모테오에게 보낸 첫째 서간 1,12-17
복 음 : 루카 복음서 15,1-32 또는 15,1-10

발 행 : 천주교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초등부
주 소 : 03083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56 가톨릭 청소년회관 내 '작은마음'
이메일 : littlemm1@hanmail.net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

그림_ 이서진 엘리사벳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모여들고 있었다. 그러자 바리사이들과 율법 학자들이, "저 사람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아흔아홉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더 기뻐할 것이다."

신부님 말씀

하느님의 사랑 안에

12지구 방배4동 성당
신현학 에라스토 신부님

'작은마음' 친구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냈나요? 추석 연휴에 오래간만에 친척들과 만나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나요? 추석은 이렇게 평소에 자주 보지 못했던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의 사랑을 나누는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추석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가족과 친척들 간에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복음은 우리 친구들도 잘 알고 있는 '되찾은 아들의 비유' 예요. 복음의 내용도 유명하지만, 성화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에게는 렘브란트의 그림으로 더 많이 알려진 복음의 내용이에요. 오늘 복음을 읽으면서 우리 친구들은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되었나요? 신부님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방탕한 생활을 하였던 아들의 회개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아들을 따스한 사랑으로 받아주는 아버지의 자비로운 마음이 매우 와닿았어요. 친구들도 그런가요?

아버지의 그 자비로운 마음은 작은 아들에게만 열려있지 않았고, 작은 아들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큰아들에게 열려있었어요. 마치 우리 친구들이 잘못을 하던, 하지 않았든 간에 늘 항상 자비로우신 하느님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비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하느님의 사랑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복음을 보면, 작은 아들, 큰아들 모두 아버지의 품 안에서 그 자비를 깨달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림_ 최진태 임마누엘

하느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친구들도 잘 알 것이에요. 주일에 가고 싶은 곳에 못 가고, 예수님의 말씀을 항상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 안에 있음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랑과 은총을 받는지 몰라요. 그것에 감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소금통

오늘 복음에서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과 회개하는 죄인을 합치면 총 몇 명 일까요?

① 98명 ② 99명 ③ 100명 ④ 101명

우리들 솜씨

새로운 도전

성북동 성당 3학년
엄희진 이레네

나는 올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마음으로 머리카락을 기부했다.
소아암 친구들에게 필요한 가발을 만들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뿌듯했다.
첫 영성체를 받아서 성체도모실수 있다.
또 용기를 내어서 반주도 할수 있게되었다.
그리고 복사도 친구들과 함께 복사교육을 받고,
복사 입단식을 하고 복사가되었다.

새로운 도전을 하면서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했지만
보람있고, 재미있고,
예수님과 친해질수 있어서 좋았다.

'우리들 솜씨'는 **어린이, 신부님, 수녀님, 선생님, 부모님** 등 모두가 참여할 수 있어요.

소개하고 싶은 글, 그림, 사진 등을 주보 앞면의 주소지 또는 스캔처리하여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주보에 실린 분들에게는 푸짐한 선물을 보내드려요.**

글/그림_이정현 베네딕토

◆ 하느님, 저를 지켜 주소서. (시편 16,1) ◆

제24회 작은마음 잔치

'작은마음' 친구들의 가장 가까운 사람은 누구인가요? 바로 가족이에요.
서로 다투거나 슬프게 할 때도 있지만 가족은 항상 나를 사랑해요.
가족과 함께한 일 또는 내가 가족을 위해 실천한 예수님의 사랑을 글이나 그림으로 멋지게 표현해주세요.

★ **주제 :** 가정 안에서 실천한 예수님의 사랑
예) 가족과 함께 미사드리기, 아픈 동생을 위해 기도하기 등

★ **대상 :** 서울대교구 초등부 어린이

★ **참가 부문**
글 부문 – 산문, 창작동화, 감상문 (원고지 8매 내외), 동시 (2편 이상)
그림 부문 – 8절 도화지 (형식과 재료 자유)

★ **마감 :** 2019년 9월 20일(금) 오후 6시 도착분까지

★ **발표 :** 2019년 10월 13일자 '작은마음'주보

* 원고와 함께 청소년국 초등부 홈페이지(www.chota.or.kr) 또는 '작은마음' 주보 하단에 있는 참가신청서를 작품 뒷면에 붙여서 보내주세요.
참가신청서가 없는 작품은 무효처리됩니다.
* 보내주신 작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본당으로 발송된 포스터 또는
청소년국 초등부 홈페이지에 있는 공문을 참조해주세요.

제24회 작은마음 잔치 참가 신청서					
작품제목					
이 름		세례명		학 년	
본 당		전화번호		참가부문	글 / 그림
주 소					

작품 뒷면에 참가 신청서를 붙여 '작은마음' 앞으로 보내주세요. 참가 신청서는 복사 가능합니다.